

이 길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단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흐르는 피의 나이는 육천 살입니다. 마귀의 영이 육천 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육천 년 묵은 마귀가 사람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기술적으로 꼬셔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더 지능이 높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다. 이 사람의 분신이 감로 이슬 성신이 되어서 내리기 때문에 그 감로 이슬성신이 인간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전부 하나님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곡 승리재단에서 있다고 해서 이 역곡재단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재단, 일본이나 미국 재단이 있는 곳에는 다 이 사람의 분신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다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움직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 입장 즉 나라는 의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웃으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웃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진짜 도를 닦는 사람은 그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마귀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도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종교가 있고 영생 안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죽은 안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 라는 의식이 생가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나' 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학문은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관 시절 영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처럼 되어야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이 사람이 밀실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나무처럼 됐을 때 나는 다 된 줄 알았습디다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처럼 된 그 다음부터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지자 정말로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도 좋아하지 않고 나쁜 것을 봐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디다.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견하는 음란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견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참견하는 음란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습성이 과거를 자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려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3개월 만에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집착력이 강함때다가 한번 하고자 하면 반잠을 자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 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려야 생각을 할 수 없는 경지에 3개월만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다 된 줄 알았습디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았습디다. 역시 한참 멀었으며 또 다른 시작에

이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해야 그게 도 닦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긴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요." 라고 하는 사람만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긴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긴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지,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라는 의식이 생가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나' 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학문은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긴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요." 라고 하는 사람만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긴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긴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있습디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짓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해야 그게 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스님들이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나' 라는 존재의 위치부터 항상 '나' 라는 것을 버리고 '나' 라는 것을 꺾어서 이기는 마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도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 닦는다고 할 수 없습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 와 더불어 싸워서 나를 이겨야 여러분들이 변

화가 되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나무처럼 돼 버립니다. 내가 아파도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슬퍼도 슬픈 것도 모르고, 좋아도 좋아하는 것도 모르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단계의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겪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 닦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런 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도 무릎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나무처럼 됐다고 해서 다 된 줄 알던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 즉 인간이 하나님에 되는 시작입니다.

불과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 라고 하시기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려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려야 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게 하면 화가 나지요? 자존심이 나오면 '자존심 음란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존심 음란죄 또한 이겼는데 그 방법은 뭐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내 상전, 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어린 아이뿐 아니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니까 바로 이 자존심 마귀가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때려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 그게 이긴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이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를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과제가 떨어지면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니까 승승장구로 이겨서 결국은 이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싸움을 해서 승승장구로 이기는 이긴자가 되어야 합니다.*

2001년 10월 16일 말씀 중에서

동양철학에서 육체와 생명의 근간이 되는 기(氣)의 차원의 피를 '기혈(氣血)'이라고 한다. 흔히 몸에 흐르는 기를 생체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생체에너지가 바로 기혈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혈은 전기(電氣)나 자기(磁氣)적인 성질을 띤 피를 말하며, 기혈로 형성된 몸을 '유체(幽體)' 또는 기체(氣體)라고 한다. 기는 인체에 들어와 혈과 같이 돈다. 육체의 생명력 내지는 생체에너지가 정혈이듯 유체의 생체에너지는 바로 기혈이다. 또한 사람이, 기혈이 흐르는 몸인 유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 내지는 세계를 기혈계(氣血界)라고 한다.

동양보감에서는 기가 정과 신의 원천이며, 기가 몸 안팎을 돌면서 생명을 영위하고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근본 존재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기는 모두 대자연으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사람이 숨 쉬는 것도 대자연의 호흡을 본받는다고 한다.

정혈(精血)에서 육체에 해당하는 의식인 정신(精神)이 있듯이 기혈에서도 유체에 해당하는 의식인 '기심(氣心)'이 있다. 기심은 동물적 본능과는 달리 여러 감정적 차원의 마음이다.

기혈계는 전기나 자기적(磁氣)인 성격의 세계이다. 그래서 서로 이끌리고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들 간에 누구는 호감이 가거나 반감을 갖게 되거나, 또 이끌리거나 괜히 싫어지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바로 기심의 작용 때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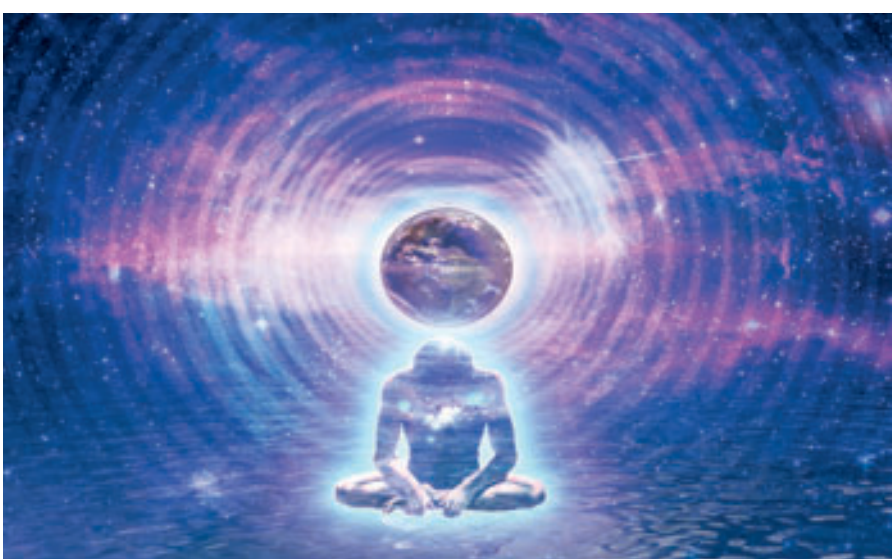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를 느끼고 기와 깊이 관련된 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주변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말할 때, '기분이 절조롭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이상하다' 등등. 그리고 공기(空氣), 온기(溫氣), 한기(寒氣), 살기(殺氣), 생기(生氣), 독기(毒氣), 화기(和氣), 체기(滯氣) 등.



피의 원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해부 ② 인간의 의식 차원2(피의 스펙트럼)



출처: www.mirror-venus.ru

기(生氣), 독기(毒氣), 화기(和氣), 체기(滯氣) 등. 기는 우주에 편안하면서 또 기는 우리 온몸을 돌면서 생명 활동을 영위케 해준다. 사람의 몸은 유체이면서 기체이기도 한데 속으로 상한 일이 생기고, 밖으로 사기를 받게 되면 기병(氣病)이 생긴다. 냉기, 체기(滯氣, 정체된 기), 역기(逆氣, 거슬러올라간 기), 상기(上氣, 솟구쳐 오르는 기) 따위는 모두 폐가 화기(火氣)를 받아 타오르면서 변한 것이다. 기혈적 차원의 유체(幽體)나 기심에서 나오는 힘은 기력(氣力)이다. 이 기력은 명상이나 요가, 참선 등의 수련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보통이나 환각제 복용 등의 뉘틀린 방법으로도 순간 개발되어진다.

기가 잘 발달되어지고 기적(氣的) 차원에 예민한 사람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생체에너지(오오라)를 본드든가 전신 물레에 나타나는 자력선이나 자장을 감지하고 볼 수 있다. 또 유령이나 귀신을 볼 수 있거나 자신의 유체가 육체를 빠져나와 유체비행할 수 있는 능력 등도 기력의 작용이다. 이렇게 기혈계를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정혈계를 보듯 유체의 눈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력(氣力)은 정력보다 고차원의 에너지며, 이 기력이 활발히 작용하려면 육체적 정력의 작용을 뛰어넘어야 한다. 기혈 역시 정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피부의 기공과 경혈 등을 통하여 외부세계인 기혈계와 교류한다.

기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천지 기운을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기혈순환이 발달한 사람은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 이 기혈적 차원도 생명의 요소인 생소(生素)와 사망의 요소인 독소(毒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전자는 사랑, 배려, 감동, 용서, 희생하는 '양심 작용' 등도 기력의 작용이다. 이렇게 기혈계를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정혈계를 보듯 유체의 눈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력(氣力)은 정력보다 고차원의 에너지며, 이 기력이 활발히 작용하려면 육체적 정력의 작용을 뛰어넘어야 한다. 기혈 역시 정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피부의 기공과 경혈 등을 통하여 외부세계인 기혈계와 교류한다.

기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천지 기운을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기혈순환이 발달한 사람은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 이 기혈적 차원도 생명의 요소인 생소(生素)와 사망의 요소인 독소(毒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전자는 사랑, 배려, 감동, 용서, 희생하는 '양심 작용' 등도 기력의 작용이다. 이렇게 기혈계를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정혈계를 보듯 유체의 눈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능이나 감정보다는 정신은 훨씬 제련되고 각성된 고차원의 의식이자 에너지이다. 이때 정신은 단순히 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기심을 초월했을 때의 정신작용과 능력을 뜻한다. 사람이 육

체(思考作用)를 볼 것 같으면 선한 사고작용과 악한 사고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신혈계 차원의 속성에도 생명의 요소인 '정신'과 사망의 요소인 '악심'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혈, 기혈, 신혈의 차원에서는 상대성(相對性)과 이원성(二元性)이 동시에 공존하나, 온전히 선한 능력과 생명의 인자(仁者)인 생소(生素)만이 작용하는 차원은 초혈(超血)이 될 것이다.

-초혈(超血)- 초혈은 정혈·기혈·신혈을 이기고 넘어서 완전한 신(神)으로 거듭난 상태다. 신으로 거듭나 형성된 몸을 성체(聖體)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체는 곧, 우주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체의 활동 공간을 '초혈계'라고 한다. 이 초혈계(超血界)는 모든 상대계(相對界)와 이원성(二元性)을 초월한 절대적인 것이다. 초혈의 마음은 '우주신'으로서 나와 대상 간에 어떠한 분리심과 차별심도 없이 모든 존재를 내 몸처럼 느끼는 상태다. 이 상태를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여(眞如)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초혈의 성체나 우주신에서 나오는 힘은 '우주력(Cosmic Power)'이다. 우주력은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이다. 전지전능한 힘으로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초혈은 존재와 의식의 차원을 무한히 추구하여 도달할 종착점인 뿐만 아니라, 각 차원에 있어서의 본성이자 본질인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佛性),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聖靈),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마음(仁義禮智)이 될 것이다.*

김주호 기자